

# 농촌 주부의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정생활복지감

A Study on the Well-Being of the Family Life Among the Rural Housewiv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Leisure

안성산업대학교 생활관리학과  
부 교수 최덕경

Dept. of Home Management Anse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Duck Kyung, Choi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문제 및 모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me related factors which influence the well-being of the family life among the rural housewives, based on the satisfaction of the leisur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200 housewives residing in Anseong. The 187 data obtained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correl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satisfaction of sports leisure, culture center leisure and music and play leisure among the rural housewives according to the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family life well-being among the rural housewiv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of sports leisure, the satisfaction of music and play leisure, the satisfaction of culture center leisure, the occupation of premarriage and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t has been found that the satisfaction of leisure remains important factors to guide according to the radical changes. If greater attentions should be directed to the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the quality of family life could be improved and stabilized.

## I. 서론

인생은 흔히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한다. 즉, 일(work)과 여가, 혹은 전쟁과 평화인데, 전쟁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일은 여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급속한 가전제품의 보급과 경제성장 속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여가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여가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삶의 질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0년 전만 하여도 전통 시장이나 상점들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상관없이 일을 하였으나, 요사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을 하는 상점들이 많이 늘고 있다. 또한 주말의 고속도로와 국도가 행락차량으로 막히는 것을 접하게 된다.

핵가족화로 가족단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과거에 먹고 살기 위해 일하던 것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여가 풍습은 농촌으로도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부들의 가전제품의 보급과 편리한 일용품의 보급으로 가사노동에서 점차 해방되는 추세이며, 이는 다시 여가의 욕구를 급증시키게 되며,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다가온 여가만족도는 실질적으로 주부의 가정생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한국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생활에 만족하는 이는 단지 16.9%에 불과하였다(한국인의 사회지표, 1996). 이와 같은 현실에서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도시나 농촌 할 것없이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가를 통해 자기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점차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적 복지감의 향상은 모든 사회 내에서의 중심 목표이며, 사회의 양상과 체제가 다를지라도 어떻게 개인의 복지감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은 전세계인의 궁극적 목표로 남게 된다. Kelly 등의 여가와 생활만족도와의 연구(1987)결과 여가의 다양성이나 여가활동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여가만족

도가 생활만족도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생활복지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농촌 주부가 느끼는 가정생활복지감에 대해 살펴보고, 스포츠 여가만족도, 문화센터 여가만족도와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만족도에 따른 농촌주부의 가정생활복지감에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 1. 여가만족도

여가 또는 여가활동이라는 개념은 노동의 반대 개념으로 강제성, 의무성이 희박한 선택행위이며,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서는 자유, 즐거움, 휴식 등과 관련되어 있다. 여가활동은 일반적으로 자유시간이나 비의무적인 시간에 자유재량에 의하여 행하는 자발적인 행동과 관련된다(박재형, 1983). 여가란 직업인, 가족구성원, 사회인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한다든지 즐기거나 사심 없이 지식, 개발 등 개인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제반행위라고 정의되고 있다(유혜경, 1980).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일에 대한 중요성의 감소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의 산업기술과 이동성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여가활동의 경험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여가활동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해소, 정서교육, 성격형성에도 큰 효과를 가져온다. 복잡한 현대사회 환경과 바쁜 생활리듬속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며, 소외감과 고독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여가활동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풀고 정서를 승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주부들 뿐만 아니라 농촌주부들에게도 여가생활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Corbin과 Tait(1973)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여가는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기표현의 기회가 되며, 또한

개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가활동을 통해 소속감이나 성취감, 상호작용, 성장, 인정 등의 욕구가 충족되어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여가에 대한 견해를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ristotle에서부터 Grazia나 Pieper 학자들에 의한 고전적인 견해로서 여가를 시간의 한 구분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활동을 통한 심적인 상태, 혹은 마음의 변화로 간주하였다. 즉, Aristotle이 주장한 여가란 정치, 철학적인 토론, 예술에 대한 추구, 음악에의 심취, 명상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인 심오한 경지 또는 즐거움 같은 것이었다. 둘째, Dumazedier가 말하는 활동으로서의 여가는 사회적으로 가정, 혹은 노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활동이며, 참가자의 의식에 따라 휴식, 기분전환, 지식의 확대, 자발적인 사회활동에의 참가, 또는 개인의 창조에 대한 가능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셋째, 자유시간 혹은 비의무적인 시간으로서의 여가는 노동이나 기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 즉, 식사, 수면 등과 같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런 의무감도 없으며,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넷째, 정신상태나 존재상태로서의 여가는 여가자체의 목적을 위해 수행된 활동에 몰입함을 말하며, 기쁨과 만족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중심적 내면과 깊게 관계되는 것이다.

여가활동을 연구한 McKechnie(1974)에 의하면 여가활동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조작적 활동은 주로 손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자동차 수리, 당구, 사냥 등 도구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며, 둘째, 공작적 활동은 재료를 이용하여 대상을 만드는 활동으로서 요리, 의상, 디자인, 뜨개질 등의 활동이며, 셋째, 지적활동은 활동자의 지적 욕구를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 영화구경, 음악감상, 독서 등이 있으며, 넷째, 일상적 활동은 정원가꾸기, 일광욕, 친구방문 등이 있으며, 다섯째, 스포츠 활동은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배드민턴, 야구, 축구, 조깅, 양궁, 등산, 요트, 스키 등이 있다(홍성표, 1990 재인용).

한편 여가의 현대적 정의의 측면에서 여가에는 사

간적 요소와 내분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여가를 만인이 공감할 수 있게 정의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홍성희(1990)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었으며, 김명자(1993)는 소극적 여가활동은 개인이 노동과 살림 및 육체적 욕구(식사, 잠 등)를 위해 살고 남은 시간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적극적 여가활동은 개인이 의무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전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여가에 대한 연구가 복지감이나 삶의 질과 관련지어 연구되고 있다. 여가생활은 특히 민주적인 가정에서 가족원간의 만족감과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타인과의 배려, 책임감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만족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족이란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인간이 심리적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일정한 목적이나 욕구를 달성함에 있어 한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Burr,1979).

특히 여가만족도도 만족이란 기본 개념에서 도출될 수 있는데, 여가만족도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욕구의 충족 또는 만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나 혹은 감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부언하면 여가만족도란 일반적인 여가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 현재 즐겁거나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여가의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야기된다(이종길,1992). 주부의 여가만족도는 자기자신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복지감향상과 연관되며, 이는 다시 사회, 국가의 정신적 복지감과 높은 연관이 있으리라 기대되어진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가의 경험은 복지감을 불러 일으키며 생활의 질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의 질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많은 분야의 비경험적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 왔으며,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여가영역을 측정하고 있다(Unger & Kerman,1981). 가정생활 복지감에 관한 주관적 연구에서 여가만족은 전반적인 행복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대형백화점이나 사회교육기관에서는 문화프로그램과 스포츠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안성지역은 사회스포츠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이 이원화되어 있다. 안성지역은 지역적인 한계로 스포츠센터가 따로 있고, 문화강좌를 하는 곳이 농촌지도소를 비롯하여 YMCA, 일반학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도농 복합도시인 안성군에서는 대형 사회교육기관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YMCA, 일부 사회교육기관 내지 학원 등에서 문화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여가만족도와 문화센터 여가만족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포츠 여가만족도, 문화센터 여가만족도, 음악 및 연극 감상 여가만족도로 규정하였다. 스포츠 여가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화센터 여가는 문화교양강좌나 교양문화교실에 의한 것이며,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는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여가활동이다.

## 2. 가정생활복지감

가정생활복지감이란 매일의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있다고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복지감은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 들이고 적어도 중요한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대응해 나아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김명자, 1993).

198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가정생활복지를 현재의 생활수준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의복, 식품, 주택, 교통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따른 소비수준에의 만족도를 주요 종속변인으로

하여 인종, 연령, 수입,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학적 변인들을 가정생활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찰하였다(Strumpel, 1973, pp.114~115;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pp.375~376).

Rudd의 연구(1981)에서는 복지감을 12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수입의 적정성인지, 현재 고용상태의 만족도, 수입에의 만족도, 생활수준에의 만족도, 저축에의 만족도, 물가상승에 따른 수입인지, 소비수준의 변화에 대한 욕구, 순자산에의 만족도, 응급시 대처할 수 있는 재정자원에서의 만족도, 가족의 재정상황이 5년후 미래에도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기대, 가족의 미래상태에 대한 기대, 재정적으로 안정된 은퇴후의 생활예상에 대한 만족도가 그 요인들이다.

Emmons와 Diener(1985)는 객관적 복지감이 주관적인 복지감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복지감을 연구하기 위해 긍정적·부정적 가치관, 사회에의 비교감, 열망수준의 심리적 과정을 고찰하였고, 긍정적 가치관과 사회에의 비교감이 복지감을 예견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Thoresen(1985)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경제복지인지와 부부만족도, 총체적 복지간에 주요 상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정생활 복지수준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가정생활복지감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정생활복지감이란 수입, 교육, 직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르는 객관적 복지감 뿐만 아니라, 개인이 현재 처한 자신의 상황을 타인과 비교하여 볼 때 스스로 지각하고 인지하는 주관적 복지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복지감을 가족과의 식사생활, 부부와의 대화생활, 남편의 가사협조, 가족과의 여행생활, 가족의 수입문제, 가족의 재산 및 저축의 문제, 가전제품, 가구 및 자동차소유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정도로 측정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주의 사상의 팽배로 인해 가정생활 복지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인 가족의 수입문제, 가족의 재산 및 저축문제, 가전제품, 가구 및 자동차 소유문제를 중요시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부부와의 대화생활도 중요한 심리변인으로 작용하여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주

부의 가정생활복지감에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가족의 식사생활과 남편의 가사협조를 함께 조사하였다.

### 3. 가정생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의 경우, 가정생활복지감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학력의 경우, 조미환(1990), 이종숙(1989) 김재경·문숙재(1992)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의 경우, 임정빈의 연구(1987)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일 때, 김재경·문숙재의 연구(1992)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가정생활 복지감이 높았다.

Davis의 연구(1981, pp.93~95)에 의하면, 순자산이 높을수록, 정규 수입을 받는 사람일수록, 재정적 열망이 낮을수록 가정생활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Berry와Williams, 1987, pp.111~113). Wilhelm과 Iams(1988, pp.144~145)는 가정생활 복지감에 주요 영향 변수로 수입 수준, 필요로 하는 화폐의 양, 응급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부채의 양, 저축의 양, 미래에의 저축을 들었다.

Galligan과 Bahr(1978)의 연구에서는 직업, 교육, 수입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긍정적으로 부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마치 사슬고리처럼 교육은 직업에, 직업은 수입에, 수입은 부부 안정과 가정생활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 2) 여가만족도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은 많아 지지만 여가활동의 범위는 좁아지고 움직이는 활동보다는 앉아서 하는 활동이 증가되고, 또한 가정의 적인 활동보다는 가정 내적인 활동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Kelly 등의 연구(1986)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활동이 감소한다고 하였고, Tinsley의 연구(1985)에서도 남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이 감소하고 여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이 감소한다고 밝히었다. 개인의 인생역정과 개인에게 부과된 외적인 요인이 관련되어 여가활동에

결정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연령보다는 사회적 연령의 고려가 여가활동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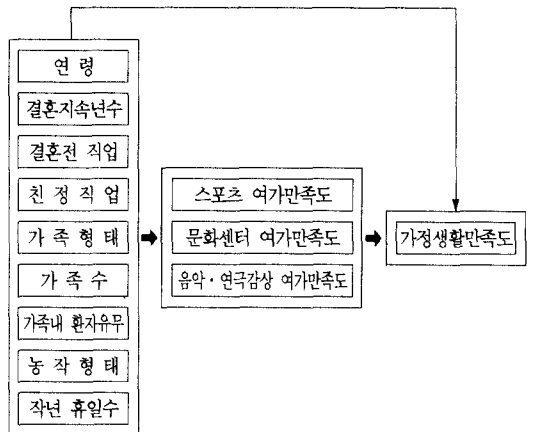
직업의 경우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및 기술직 순으로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여가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보다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미, 1992).

여가활동의 경우, Mammem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1)에 의하면, 남편의 경우 여가를 즐길수록 가정생활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인의 경우 여가활동과 가정생활 복지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afstrom의 연구(1981, p.80)에 의하면, 배우자와 보내는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가정생활 복지감을 높게 인지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김명자(1982), 홍순혜(1984)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만족도가 가정생활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장상희의 연구(1983)에서는 여가만족도는 가정생활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III. 연구문제 및 모형

### 1. 이론모형의 구성



## 2. 연구문제설정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농촌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여가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독립변인(연령, 결혼지속년수, 결혼전 직업, 친정직업, 가족형태, 가족수, 가족내 환자유무, 농작형태, 작년휴일수)에 따라 농촌 주부의 여가만족도(스포츠 여가만족도, 문화센터 여가만족도,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3〉 독립변인과 여가만족도에 따라 농촌 주부의 가정생활 복지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4〉 농촌 주부의 독립변인, 매개변인(여가만족도)과 종속변인(가정생활 복지감)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3. 조사도구의 측정

### 1) 독립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 결혼지속년수, 결혼전 직업, 친정직업, 가족형태, 가족수, 가족내 환자유무, 농작형태, 작년휴일수의 9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 2) 매개변인

여가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포츠 여가만족도, 문화센터 여가만족도와 음악 및 연극 여가만족도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스포츠 여가만족도는 에어로빅, 수영, 헬스, 테니스, 볼링, 등산 조깅 등의 스포츠활동에 따른 만족도이며, 문화센터 여가만족도는 컴퓨터교실, 요리강습, 개 한복, 홈패션, 꽃꽂이, 지점토, 수지침, 일반교양강좌, 자녀교육, 메이크업강좌, 예절교육, 간호보조교육 등의 문화교양강좌에 의한 만족도이다. 또한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만족도는 연극, 영화, 음악회, 연주회, 음악청취 등의 활동에 따른 만족도이다.

### 3) 종속변인

가정생활 복지감은 가족과의 식사생활, 부부와의 대화생활, 남편의 가사협조, 가족과의 여행생활, 가족의 수입문제, 가족의 재산 및 저축의 문제, 가전제

품, 가구 및 자동차소유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정도로 측정하였다.

## 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00부의 예비조사를 199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요인분석과 panel test를 실시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 보완, 수정하여 200부의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시기는 1995년 12월 1일부터 1996년 1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부실기재 등을 제외한 18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사대상지역은 안성군에 위치한 13개 읍면의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 낙농업에 종사하는 200가옥으로, 직접 탐방하여 인터뷰와 설문지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SPSS PC+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ANOVA분석을 통해서 독립변인에 따른 여가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Duncan의 사후검증을 통해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ANOVA분석을 통해서 독립변인과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정생활복지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Duncan의 사후검증을 통해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넷째,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 여가만족도 및 가정생활 복지감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안성은 수도권에 속하며 1998년 4월 1일자로 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도농도시로서 13개 읍면으로 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187)			
변 인	구 분	빈 도	%
연 령	34 세 이하	42	22.5
	35 - 39세	100	53.4
	40 세 이상	45	24.1
결혼지속년수	9년 이하	43	23.0
	10 - 15년	96	51.9
	16년 이상	48	25.1
결혼전직업	농어업	52	27.8
	회사원	96	51.3
	기타	39	20.9
친정직업	농어업	109	57.8
	회사원	32	17.1
	기타	45	24.0
가족형태	핵가족	95	51.4
	확대가족	92	48.6
가 족 수	3 명 이하	16	8.6
	4 명	67	35.8
	5 명	39	20.9
	6 명이상	65	34.8
가족내 환자유무	없음	167	89.3
	있음	20	10.7
농작형태	논농사	51	27.3
	밭농사	52	27.8
	과수원	52	27.8
	낙농업	32	17.1
작년휴일수	없음	35	18.7
	1 - 20일 이내	83	43.4
	21 - 40일 이내	19	10.2
	41 - 60일 이내	31	16.5
	60 일 이상	19	10.2

성되어 있다. 낙농업이 우세하며, 그 일환으로 안성 산업대학교가 1996년 낙농특성화 대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성쌀은 그 품질이 인정되며, 과수 또한 거봉포도, 안성배는 그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재배로 인한 야채농업 또한 활성화되어 있는 매우 특유한 도농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기계화되어 있으며, 소득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농한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노동시간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주부들의 의식이 높으며, 이로 인한 여가생활활용에 대한 욕

구도 높다. 따라서 농촌지역이지만, 다른 농촌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주부의 연령은 35-39세(53.4%)가, 결혼지속년수는 10-15년집단(51.9%)이, 결혼전 직업은 회사원집단(51.3%)이, 친정직업은 농어업(57.8%)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고, 가족수는 4명인 경우(35.8%)와 6명이상인 경우(34.8%)가 많았다. 농작형태는 논농사 27.3%, 밭농사 27.8%, 과수원 27.8%, 낙농업 17.1%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작년의 휴일수를 살펴보면, 20일이내(43.4%)일 경우가 가장 많았고, 휴일이 하루도 없었다는 경우도 18.7%나 되었고, 61일 이상(1주일의 한배이 휴일일 경우 일년에 53일이 휴일됨)의 휴일을 가진 집단은 10.2%에 불과하였다.

## 2. 농촌주부의 여가유형

농촌주부가 원하는 여가휴일의 형태는 〈표 2〉와 같다. 대부분 일주일에 1일의 휴일형태를 원하고 있었고(41.2%), 일주일에 2일의 휴일을 원하는 농촌주부는 19.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휴일이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주부도 29.4%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6일 근무하는 근로환경에 대해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원하는 여가휴일유형

(N=187)		
변 인	빈 도	%
일주일에 2일 휴일	36	19.3
일주일에 1일 휴일	77	41.2
휴일 없음	55	29.4
기타(시간나는 데로, 원할 때)	16	8.6

여가활동에 방해가 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다.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이유로는 평일에 자유시간이 없다는 42.8%로 가장 많았고, 돈이 없어서가 14.4%, 장소와 시설이 없어서가 14.4%, 휴일이 적다가 12.3%를 차지하였다. 시간이 생겨도 가사

〈표 3〉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이유들

(N=187)

변 인	빈 도	%
평일에 자유시간이 없다	80	42.8
돈이 없다	27	14.4
휴일이 적다	23	12.3
가사와 육아에 시간을 보낸다	13	7.0
아이를 보살 필 사람이 없다	12	6.4
능력과 체력이 없다	11	5.9
친구가 없다	6	3.2
정보가 없다	3	1.6
장소와 시설이 없다	1	0.5
지도기관이 없다	1	0.5

와 육아에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는 7.0%, 아이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여가를 못한다고 응답한 농촌주부는 6.4%이었다. 그 밖에도 능력과 체력이 없어서(5.9%), 친구가 없어서(3.2%) 순으로 여가활동에 방해되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장소나 지도기관의 미흡과 같은 외부환경의 요인보다는 시간부족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여가활동의 방해요인이라고 응답하여 농촌주부들의 시간관리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할 수 있다. 또한 가사일과 육아 때문에 여가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여, 서울지역에만 편중되어있는 자녀교육과 보육시설을 농촌지역에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 3. 농촌주부의 독립변인에 따른 여가만족도

독립변인군들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결혼전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 결혼전 직업이 농어업일 때 여가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결혼전 직업이 농어업인 집단과 회사원이나 다른 직업인 집단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스포츠 여가만족도의 경우 결혼전 직업( $p<.05$ ), 가족형태( $p<.05$ )와 가족수( $p<.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혼전 직업이 농어업일 때 가장 높은 스포츠

여가만족도를 보였고, 다른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일 때 높은 스포츠 여가만족도를 나타냈고, 핵가족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수는 6명이상일 때 높은 스포츠 여가만족도를 보여, 가족수가 5명이하인 집단과 6명이상인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문화센터 여가만족도의 경우 가족형태( $p<.05$ )와 가족수( $p<.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일 때 높은 문화센터 여가만족도를 나타냈고, 확대가족집단과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가족수의 경우 4명일 때 높은 문화센터 여가만족도를 보여, 가족수가 4명이하인 가족집단과 5명인 가족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만족도의 경우 결혼전 직업( $p<.05$ )과 농작형태( $p<.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혼전 직업이 농어업일 때 가장 낮은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만족도를 보였고, 농어업집단과 결혼전 직업이 회사원인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농작형태는 낙농업일 때 가장 낮은 여가만족도를 보였고, 논농사와 과수원일 때 높은 여가만족도를 보였고, 논농사와 과수원을 하는 집단과 밭농사와 낙농업을 하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독립변인별로 여가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서구사회와는 달리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서 가족수, 가족형태와 같은 가족관련변인이 주부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스포츠 여가나 문화센터 여가와 같이 적극적인 여가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농촌주부에 있어서 여가만족도에는 실질적인 작년의 휴일수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었으나, 조사결과로 미루어 여가만족도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휴일수보다는 심리적인 변수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부부간 친밀한 의사소통의 결과 제반 가정생활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인다면 이것이 부부의 밀착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전체의 친밀감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예상되며, 정서적 안정감이 여가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표 4〉 독립변인군들에 따른 여가만족도

(N=187)

변 인	구 분	스포츠 여가만족도	문화센터 여가만족도	음악및연극 여가만족도	전체
연 령	①34 세 이하	1.17	1.12	1.07	1.71
	②35 - 39세	1.08	1.07	1.09	1.68
	③40 세 이상	1.02	1.06	1.12	1.77
	F 값	1.58	0.51	1.94	0.48
결 혼 지 속 년 수	①9년 이하	1.12	1.08	1.09	1.77
	②10 - 15년	1.13	1.11	1.07	1.66
	③16년 이상	1.02	1.03	1.13	1.76
	F 값	2.06	1.17	0.52	0.81
결 혼 전 직 업	①농어업	1.15 B	1.10	1.06 A	1.63 A
	②회사원	1.09 A	1.03	1.09 B	1.70 B
	③기타	1.03 A	1.07	1.16 B	1.85 B
	F 값	2.31*	0.98	2.37*	2.37
친 정 직 업	①농어업	1.09	1.10	1.11	1.71
	②회사원	1.10	1.04	1.10	1.67
	③기타	1.14	1.07	1.09	1.74
	F 값	0.47	0.89	0.20	0.51
가 족 형 태	①핵가족	1.04	1.13	1.14	1.69
	②확대가족	1.13	1.04	1.06	1.74
	t 값	-1.92*	1.98*	1.75	-0.72
가 족 수	①3 명 이하	1.07 A	1.13 B	1.13	1.56
	②4 명	1.09 A	1.14 B	1.11	1.77
	③5 명	1.06 A	1.00 A	1.08	1.62
	④6 명이상	1.14 B	1.07 AB	1.08	1.09
	F 값	2.31*	2.32*	0.58	1.09
가 족 내 환 자 유 무	①없음	1.08	1.08	1.10	1.70
	②있음	1.16	1.00	1.00	1.69
	t 값	-1.04	0.98	0.98	0.53
농 작 형 태	①밭농사	1.10	1.10	1.06 A	1.81
	②논농사	1.08	1.06	1.14 B	1.68
	③과수원	1.13	1.12	1.14 B	1.70
	④낙농업	1.06	1.04	1.00 A	1.65
	F 값	0.51	0.83	2.56*	0.77
작 년 휴 일 수	①없음	1.08	1.09	1.09	1.69
	② 1 - 20일 이내	1.06	1.06	1.14	1.72
	③21 - 40일 이내	1.11	1.16	1.00	1.85
	④41 - 60일 이내	1.13	1.10	1.03	1.77
	⑤60 일 이상	1.21	1.06	1.06	1.66
	F 값	1.14	0.58	1.47	1.36

※ \* P < .05 \*\* P < .01 \*\*\* P < .001

4. 농촌주부의 독립변인과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정생활복지감

독립변인군들에 따른 가정생활복지감의 유의한 차

이를 검증한 결과 결혼적 직업(p<.05)과 가족수(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적 직업이 농어업일 때 가정생활복지감이 가장 높았고, 결혼전 직업이 농어업이기 보다는 회사원이나 다른 직업일 때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수는 4명일 때 가장 높은 가정생활복지감을 나타냈고, 가족수가 3명 이하나 6명 이상인 집단과 가족수가 4, 5명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정생활복지감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 여가만족도( $p < .01$ ), 문화센터 여가만족도( $p < .01$ )와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만족도( $p$

$< .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포츠 여가만족도에 가장 낮은 만족을 보인 하집단의 경우 가정생활복지감이 가장 낮았고, 스포츠 여가만족도가 하인 집단과 중상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문화센터 여가만족도에 가장 낮은 만족을 보인 하집단의 경우 가정생활복지감이 가장 낮았고, 문화센터 여가만족도가 하인 집단과 중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

〈표 5〉 독립변인군들에 따른 가정생활복지감

(N=187)

변인	구분	가정생활 복지감	변인	구분	가정생활 복지감
연령	① 34 세 이하	1.88	가족내 환자유무	① 없음	1.95
	② 35 - 39세	1.97		② 있음	1.79
	③ 40 세 이상	1.89		t 값	1.38
	F 값	0.78			
결혼 지속년수	① 9년 이하	1.91	농작형태	① 밭농사	1.81
	② 10 - 15년	1.98		② 논농사	1.68
	③ 16년 이상	1.86		③ 과수원	1.60
	F 값	1.29		④ 낙농업	1.65
			F 값	0.97	
결혼전 직업	① 농어업	2.00 B	작년휴일수	① 없음	1.69
	② 회사원	1.88 A		② 1 - 20일 이내	1.72
	③ 기타	1.97 A		③ 21 - 40일 이내	1.85
	F 값	2.45*		④ 41 - 60일 이내	1.77
			⑤ 60 일 이상	1.66	
			F 값	0.63	
친정직업	① 농어업	1.90	스포츠 여가만족도	① 하	1.89 A
	② 회사원	1.94		② 중	2.28 B
	③ 기타	2.00		③ 상	2.00 B
	F 값	0.76		F 값	11.79***
가족형태	① 핵가족	1.94	문화센터 여가만족도	① 하	1.90 A
	② 확대가족	1.96		② 중	2.27 B
	t 값	-0.53		③ 상	2.00 AB
				F 값	4.46**
가족수	① 3 명 이하	1.82 A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만족도	① 하	1.85 A
	② 4 명	2.02 B		② 중	1.98 A
	③ 5 명	1.97AB		③ 상	2.40 B
	④ 6 명 이상	1.85 A		F 값	4.63**
	F 값	1.99*			

\* \* P < .05 \*\* P < .01 \*\*\* P < .001

타냈다.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만족도가 상인 집단의 경우 가정생활복지감이 가장 높았고, 가장 높은 여가만족을 보인 상집단과 중하집단간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농촌 주부들에게 여가만족도에 따라 가정생활복지감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보다 다양한 스포츠문화와 문화센터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함을 알 수 있으며, 서울시에 집중해서 공연되는 음악과 연극공연이 농촌지역으로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 주부들에게도 도시 주부에 못지않게 여가만족도가 가정생활 복지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여가문화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함을 알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여가문화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주부는 편리한 가사기기의 보급, 핵가족화, 자녀교육의 사회이양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어 주부가 혼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부가 여가활동을 보내는 지출비가 증가되더라도 여가생활에 만족감을 느낄 경우, 긍정적인 가

정생활 복지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 됨에 따라 부부중심의 가족문화와 함께 여가의 비중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건전한 여가문화는 정신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주부들로 하여금 이러한 여가에 대한 만족감을 통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감을 갖게 하여 준다. 따라서 여가의 중요성은 각박해지는 현대 사회속에서 점차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지는 것이며, 바로고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을 위해 개인적차원, 사회적차원 및 정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농촌주부의 독립변인, 여가만족도 및 가정생활복지감의 상관관계

독립변인, 여가만족도와 가정생활복지감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가정생활복지감에는 결혼전 직업이 농어업일수록 (r=-.25) 높은 가정생활복지감을 나타내어 결혼전 직업이 농어업일 때 보다 농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수가 적을수록 (r=-.

<표 6> 독립변인, 여가만족도, 가정생활복지감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연령	1.00											
2.결혼지속년수	.66**	1.00										
3.결혼전 직업	-.05	.04	1.00									
4.친정직업	-.02	-.03	.15	1.00								
5.가족형태	-.04	.01	.07	.14	1.00							
6.가족수	.14	.16	.04	.03	.53**	1.00						
7.가족내환자유무	-.06	-.10	-.06	-.06	.11	.02	1.00					
8.농작형태	-.06	-.13	-.01	.06	-.11	-.02	.04	1.00				
9.작년 휴일수	-.03	-.18*	-.03	-.07	-.01	-.08	-.06	-.01	1.00			
10.스포츠여가만족도	-.13	-.13	-.21*	.08	.19*	.18*	.23*	-.05	.14	1.00		
11.문화센터여가만족도	-.08	-.08	-.07	-.07	-.21*	-.24*	.10	-.06	.02	.38**	1.00	
12.음악연극여가만족도	.05	.04	.21*	-.05	-.08	-.06	.11	-.04	-.07	.20*	.24**	1.00
13.가정생활복지감	-.02	-.07	-.25*	.11	.07	-.21*	-.07	-.17	.12	.30**	.20*	.20*

\* P < .01 \*\* P < .001

21) 높은 가정생활복지감을 나타내어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인 경우가 더 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가만족도의 경우 스포츠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r=.30$ , 문화센터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r=.20$ ),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r=.20$ ) 높은 가정생활복지감을 나타내었다.

## V. 결론 및 제언

농촌 주부의 사회인구적 변인과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정생활 복지감의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촌주부는 대부분 일주일에 1일의 휴일유형을 원하고 있었으나(41.2%) 휴일이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주부도 29.4%로 나타나 휴일수에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동에 방해가 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평일에 자유시간이 없다는 42.8%가 가장 많았고, 돈이 없어서가 14.4%, 장소와 시설이 없어서가 14.4%, 휴일이 적다가 12.3%를 차지하였다.

둘째, 독립변인군들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결혼적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5$ ) 결혼적 직업이 농어업일 때 여가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스포츠 여가만족도의 경우 결혼전 직업이 농어업일 때( $p<.05$ )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일 때( $p<.05$ )와 가족수가 6명 이상일 때( $p<.05$ )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문화센터 여가만족도의 경우 가족형태가 핵가족일 때( $p<.05$ )와 가족수가 4명일 때( $p<.05$ ) 높은 여가만족도를 나타냈다.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만족도의 경우 결혼전 직업이 농어업이 아닐 때( $p<.05$ )와 농작형태가 논농사와 과수원일 때( $p<.05$ ) 높은 여가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결혼전 직업과 가족수, 가족형태와 같은 가족관련변인이 주부의 여가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독립변인군들에 따른 가정생활복지감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결혼적 직업이 농어업일 때( $p<.05$ )와 가족수가 4명일 때( $p<.05$ ) 가장 높은 가정생활복지감을 보였다.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정생활복지감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 여가만족도( $p<.01$ ), 문화센터 여가만족도( $p<.01$ )와 음악 및 연극감상 여가만족도( $p<.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농촌 주부들에게 여가만족도가 가정생활 복지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여가문화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함을 알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여가문화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역할은 점차 증대하리라 기대되어진다. 이는 각박해진 현대사회에서 여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보다 윤택한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사회풍토에 힘입어 여가는 가정생활 복지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가정의 복지차원에서 주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 측면에서의 여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안정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농촌주부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여가만족도가 농촌주부의 가정생활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밝혀졌으나, 이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농촌주부의 가정생활 복지감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보다 용어정의가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생활 복지감 척도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선행연구와 연관지어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을 통해 농촌주부의 가정생활 복지감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가정생활 복지감의 증진이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1) 김 광. 1993. 현대 여가론, 백산출판물.
- 2) 김명자. 1993.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향유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문겸. 1995. 여가의 사회학, 한올아카데미.
- 4) 김문겸. 1994. 현대사회와 여가, 부산대출판물.
- 5) 김의숙. 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정책”,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5호.
- 6) 김용우. 1986. “소도시 직장인들의 여가활동의 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7) 민경애, 윤복자. 1985.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1호.
- 8) 박재형. 1983. “노인 여가의 구조적 특징과 그 유형”, 핵가족화와 노년복지,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9) 유혜경. 1980. “여가교육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이선미. 1992.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영옥. 1994.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대구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장상희. 1983.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 조사연구, 제2권 1호.
- 13) 지영숙. 1975. “한국 도시주민의 여가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논문집, 제21권.
- 14) 통계청. 1996. 통계분석자료 모음. 통계청.
- 15) 한경미. 1995. “기혼 취업 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3호.
- 16) 한경미, 황덕순. 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8권 1호.
- 17) 홍석표. 1990.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홍성희. 1990.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 요인에 관한 연구”, 이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Ann Wiseman Bailey. 1987.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well-being of families, *Journal of Home Economics*, pp.14-18.
- 20) Berry, R.E. & F.L. Williams. 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pp.107-116.
- 21) Davis, E.Patricia. 1981.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Determinants and correlates, University of Missouri, Ph.D.
- 22) Emmons R.A. & E. D. Diener. 1985. Factors predictiong satisfaction judgements : A comparative examin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6, pp.157-167.
- 23) Foster A.C. & E. J. Metzen. 1981. Wife's earnings and family net worth pos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0(2), pp.192-202.
- 24) Galligan R.J. & S.J. Bahr. 1978. Economic well-being and marital stability implications for income maintenance progra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283-290.
- 25) Hafstrom J. & M.M. Dunsing. 1973. Level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2(2), pp.119-132.
- 26) Kelly J.R., Steinkamp M.W. & J.R. Kelly. 1987. Later-life satisfaction :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 9, pp.190-200.
- 27) Mammen S., Hwlmic S.A. & E.J. Metzen. 1983. Factors affecting perceived adequacy of income, University of Illinois.
- 28) Tinsley H.A, Teaff J.D., Colbs S.L. & N. Kaufman. 1985. A system of classification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the psychological enefits of participation reported by older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vol.40(2).
- 29) Unger L.S. & J.B. Kerman. 1981. Leisure and the quality of life construct : A review & some modest proposal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 vol 8, pp.607-611.
- 30) Wilhelm, M.S. & D.R. Iams. 1986. Measures of economic well-being husband and wife consensu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pp. 144-152.
- 31) Williams, F.L.. 1985. Family & personal resource management a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 Washington D. 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32) Winter M., Earl W.Morris & Maria de L.Rubic. 1988.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financial well-being among farmer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 pp.293-299.